허망한 생각에서 단상 이견이 나온다

〈斷常〉 〈二見〉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㊽ 단상과 이견

〈원문〉 "세존이시여, 괴로움이 소멸된 진실한 법인 멸제(滅諦)는 불가사의하여 일체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붙일 바를 뛰어넘었으며,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마치 소경으로 태어난 이가 모든 빛깔을 보지 못하며, 태어난 지 이레 된 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괴로움이 소멸한 진실한 법(苦滅諦)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범부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의 지혜로 헤아릴 경계도 아닙니다.

범부의 마음에는 뒤바뀐 두 가지 소견이 있고, 일체 아라한·벽지불의 지혜는 청정하다 해도 멸제를 증득한 것은 아닙니다. 변견(邊見)이란 것은, 범부들이 5수음(受陰)에 대하여 '나'라는 허망한 소견으로 고집하여 두 가지 소견을 내는 것을 말하니 곧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이 그것입니다. 모든 변천하는 것(諸行)이 항상함이 없다고만 보는 것은 바로 단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며,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으로 이와 같은 소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몸의 여러 근(根)에 대하여서는 분별을 내어 생각하되, 지금 있는 법이 망가지는 것만 보고,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므로 단견을 내나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이며, 마음이 서로 계속하는 데 대하여서는 캄캄하여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잠깐 사이에 의식(意識)의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상견을 내는 것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저 참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분별하되 단(斷)이라 하거나 상(常)이라 합니다.

뒤바뀐 중생들은 5수음에 대하여 항상함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며, 부정(不淨)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아라한·벽지불들의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도 일체지(一切智)의 경계와 여래의 법신에 대하여는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설〉 이 대목에서는 범부들의 뒤바뀐 소견에 대하여 주의를 준다. 괴로움이 소멸한 진실한 법(苦滅諦)이 있는데 소경이 빛깔을 보지 못하고 갓난아기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뒤바뀐 소견 곧 허망한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한 진실한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수음(五受陰)은 오취온(五取蘊)이라고도 하는데 오온(五蘊)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중생이 과보를 받는 법이므로 총괄하여 수(受)라 하는 것이다. 〈능엄경(楞嚴經)〉에는 "아난아 이 오수음은 다섯 가지 망상이 성립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단견이나 상견을 가져 그릇된 견해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견이란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상견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곧 유(有)와 무(無)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식심에 떨어져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다. 멸성제(滅聖諦)에 갖추어진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열반 4덕을 모르고 오음에 대하여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또 오음에 대하여 뒤바뀐 생각이란 다시 말하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개공'을 모른다는 것이다.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를 모르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하여 오온이 '나'인 줄 알고 법신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일체지(一切智)라 말은 경론에 따라 네 가지의 뜻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람을 뜻한다.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때는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 된다. 셋째는 모든 것을 아는 것 자체를 뜻하는 말로 지혜가 나오는 원점을 뜻하는 말이 된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아는 것을 지혜라 한다. 지혜가 공을 뜻한다. 〈끝〉

〈반야불교연구원장〉

깊은 수행과 함께 기초도 튼튼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불교의 궁극적 목표 성불 위해선
선정수행 다섯 가지 조건 갖춰야

선정수행 잘 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 계율(戒律)를 잘 지켜 나가는 것
- 음식과 의복 지혜롭게 갖추는 것
- 참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 세속 불필요한 모든 緣 끊는 것
-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것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
-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
-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 대신심·대분심·대의심 일으키는 것

깨달음 얻기 위해 몸·마음 조절
- 첫째, 음식을 조절하고,
- 둘째, 수면을 조절하고,
- 셋째, 몸·호흡·마음 조절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할 때 참선에 들어갈 때와 있을 때와 나올 때, 양상 서로 다른 구분 조절하는 방법에서는 3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중요
- 3가지 고르지 못해 조절할 땐 몸과 호흡, 마음에 순서 없이 부조화된 것부터 여법히 조절

결론

지금까지 선정삼매를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과 깨달음을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 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정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고, 둘째가 음식과 의복을 지혜롭게 갖추는 것이며, 세 번째가 참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세속의 불필요한 모든 연(緣)을 끊고, 다섯 번째는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며, 두 번째 마음가짐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가짐은 대신심·대분심·대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법에서는 첫째, 음식을 조절하고, 둘째, 잠을 조절하고, 셋째, 몸과 호흡과 마음을 함께 조절하는 것입니다.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할 때는 참선에 들어갈 때와 참선 중에 있을 때와 참선에서 나올 때의 양상이 서로 달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되고 있지만 조절하는 방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참선 중에 몸·호흡·마음 이 세 가지가 고르지 못하여 조절할 때는 몸·호흡·마음에 순서 없이 부조화가 된 것부터 먼저 여법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고 과거세에 지은 영겁의 악업을 참회하여 장애를 없애고 몸과 호흡과 마음을 올바르게 조절하여 참선을 할 때 몸과 호흡과 마음에 막힘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깊은 선정·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깊고 높은 수행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나 예비적인 수행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지 않으면 결코 깊은 수행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심법문에서 말씀드린 선정삼매를 얻을 수 있는 인연 조건들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조절 방법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크고 깊은 대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끝〉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㊽ 한밤의 슬기로운 님의 경

'지금'에는 형체도 이름도 없다

"이미 지나간 것, 그것은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는 한 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불리리."

속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다음부터는 속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도 한다. 그리고 다시 속는다. 머쓱해서 웃어보아도 웃는 것이 아니다. 도돌이표 같은 수행이 한심하지만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름은 열심히 정진하고, 경을 보는 알음알이도 적지 않고, 나름 체득도 하고, 법문을 들으면 금방 이해도 한다. 이러니 참으로 갑갑하고 속상하고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얻어질 듯 말 듯해 답답할 것이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는 매한가지이고, 속는 지점은 늘 비슷하다. 아예 모르면 포기 하겠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때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 흐르는 흐름에 누가 끼어들어서 옳고 그름으로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생긴다. 그러고 보니 개입한 옳은 방향이란 없었고, 개입하지 않은 틀린 방향도 없었던 것인데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온 날들이 떠올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돌이켜보면 오온의 개입이 있건 없건, 시비[是非]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사실 그대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식하는 '사실 그대로'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가 다르다는 것을 뭇 삶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과를 사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전자(前者)는 눈에 투사된 사과를 진짜 사과라고 말하는 것이고, 후자(後者)는 눈에 투사된 사과를 그냥 사과로 두는 것이다. 사과를 보는 것에 전자와 후자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전자는 사물의 어떤 고정성에 묶여 사과라는 실제를 만들어 사과가 아닌 것과 사과를 구분하고, 획일성을 유지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 그것에 따라 인지하여 다른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 후자는 사과라는 이름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 이름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고정성에 묶여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불려지는 그것만을 인지한다. 지금 보고 있지만 변해가는 인지는 계속 변화한다고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보는 지금의 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 다 사과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물을 보고 있지만 고정된 이름으로 보고 있는 것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저하게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이름이라 말하지 못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이미 변한 것이지만 물질의 연속성에 묶여 있으면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를 온전한 파악으로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어느 것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무엇과도 연결될 수 없다. 세상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물질은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하여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뭇 삶은 물질의 연속성으로 보고 연결하여 근심 아닌 근심을 하게 된다.

뭇 삶은 연속성과 찰나를 자신의 인식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당황하여,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지만 인지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사물의 연속성과 찰나를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뒤죽박죽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연속성은 물질 본연의 불변[如如]을 말하는 것이고, 찰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물질의 성질을 연속성으로 보든지 물질의 본연을 찰나로 인식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나고, 이미 지나간 것에서 무엇이 없어지지 않았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如實]는 언제나 온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개체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없다. 모든 일에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관찰한다면 흔들림 없는 앎이 무엇이고, 피곤하지 않는 앎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끝〉

〈(사)여시아문 선원장〉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